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7-12]

한국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 떠 놓고 날마다 기도했죠. 해 보고도 기도하고, 달 보고도 합니다. 정성을 다 하면 천지신명께서 감동을 받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성을 다 하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천지신명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은 천지신명, 혹은 일월성신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비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기도를 이루어만 준다면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조상들이 가졌던 이런 유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쯤에 이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누가 들으시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분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죠. 그 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분에 맞추어야 우리의 열심이 효과를 내는 거죠. 그 분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구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떠올라요. 그 때는 왜 그랬는지 ‘제 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돈 없다고 하면 군소리 안 하고 갔어요. 학교 가서 쫓겨나면 쫓겨났죠. 그래도 집에 와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은 무슨 일인지 이 돈은 가져가야 된다고 내 놓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세들어 살고 있던 집 마당에 공사판에 쓰는 철판이 몇 장 팔려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비행기 활주로 막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 장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돈 내 놓으라고 쿵쿵 거리면 소리가 많이 나요. 어머니가 쫓아 나와서 “없다 하는데!” 하면 도망갔다가 방에 들어가시면 또 올라가서 막 쿵팡거리려 대는 거죠. 계속 그러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 착한 애가 오늘 왜 저러노?” 하고 찾아 왔어요.

능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돈 내 놓으라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날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돈을 쥐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능력 없는 부모에게는 내 놓으라고 아무리 구해도 안 나오는 법이에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유난히 그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무얼? 하나는 확실히 배웠으니깐요.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법이란 것을 배웠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신에게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400명이! 그것도 나중에는 온 몸을 그어가면서도 맹렬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능력 없는 신에게 아무리 때거리로 물려가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 있는 그 분에게, 엘리야는 말이 많이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 주옵소서!” 이 한 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것

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 분에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덮어놓고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하라, 그 다음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전 옛날부터 소풍가서 보물찾기하면 잘 안 찾아져요. 재주가 없는지 공짜는 바라지 말고 살라는 건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물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바보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보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만 있다고 가르쳐 주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녀석이 그걸 안 듣고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선생님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제 혼자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나와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서 찾아야지, 없는데서 열심히 찾아봐야 안 나오죠. 보물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두드리라고 그랬죠? 옛날 우리 집에 옆집의 부인이 맨발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숨겨 줬어요. 한참 후에 살금살금 나가보니 아파트 1층인데 그 집에서 연기가 폴폴 나고 있었어요. 불이 난 줄 알았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부부 싸움을 해서 이 부인은 우리 집에 도망을 왔고 남편은 불 꺼 놓은 채 나가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밖에서 가스를 잠겼어요. 그래도 창문에서 연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소방서에서 와서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술에 떡이 돼서 널부러져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펄펄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두드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두드리면 뭐해요? 아니, 사람이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널부러져 있을 때는 두드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두드리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어줄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 응답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11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분을 염두에 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 분'이 더 중요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초만 되면 소원을 빌겠다고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물론 놀이삼아 가는 분도 거의 태반이지만, 반은 놀이, 반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 답니까? 할매바위 있죠? 소원을 빌면 애기를 낳게 해준다는 바위 말입니다. "미안하다, 열심은 참 대단한데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이 정도 말이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이 말 한 마디도 해줄 수 없는 바위에게 열심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기도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학시험 칠 때 마다 교문에 엮이 얼마나 붙는지 몰라요. 시험 칠 때 왜 그렇게 대문에다가 엮을 붙여놔요? 엮이 달라붙듯이 붙으라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엮을 붙이면 입학시험에 붙는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직업 다 바꾸죠. 전부 엮장수로요. 이게 슬금슬금 발달하더니 입학시험 칠 때만 되면 이런 진득진득한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엮에서 한 발짝 나가서 찹쌀떡, 찹쌀떡을 돌려요. 찹쌀떡이 그렇게 잘 붙나요?

그러더니 입시철 되면 유행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포크를 선물로 잘 줘요. 뭐하라고요? 잘 찍으라고. 거울도 선물로 줘요. 왜요? 잘 보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로 줘요. 잘 풀라고. 그 선물 중에 하이라이트, 제가 보기에 우습기도 해요. 카스테라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카스테라는 왜 돌리냐? 했더니 가서 되라고요. 어느 카스테라 장사꾼이 궁리를 했겠죠. 가막히는 상술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다고 붙을 것 같으면? 택도 없는 노력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믿는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역국 먹고 가면 떨어지냐? 그냥 미역이 미끌미끌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미신은 우리가 앞장서서 타파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번 시험 치러 갈 때 전부 미역국 먹어. 그리고 붙어!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염두에 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팔공산에는 아주 영험한 부처님이 계셔요. '갯바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입학 원서 다 써 놓고 선생님들이 단체로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갯바'

위까지 다녀왔단다' 하면서 학부형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입학 성적이 좋으면 선생님들이 저런 노력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고 말하면 하다못해 땀고물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놀이점 학부형들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밀쳐야 본전이니까 가자는 겁니다!

혹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 주시면 손해 볼 것도 없고. 우리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가 된다면 이것은 기도 중에 가장 나쁜 기도입니다. 갓바위 부처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우리 기도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가 이런 식이라면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시켰더니 하나님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는 놈은 기도시키지 싫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번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란 고백 한 번 없이 열심히 좋은 말 다하면 뭐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전제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9절에서 11절이 참 잘 보여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던데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분은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들어 주실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도 모른 채 대 놓고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안 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철없이 기도할 때는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죠.

우리가 요구한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아이가 살이 너무너무 탱탱한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툭 건드리면 죽는다고 난리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살이 워낙 부풀어 있어서 건드리면 본인은 찢어질듯이 따갑대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애가 달라는 데로 다 먹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즈음은 좀 잠잠한 듯 같습니다만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해 달라는 것 돈으로 다 때워 줬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위 오렌지족이잖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분들에게 자기가 원래 기도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어요.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없던 한나가 소원한 것은 아들 하나였어요. '정말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나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어떤 아들 주셨나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에게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픔의 역사를 깨끗이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아주 위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위대한 아들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달라고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는 멋진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후에 물론 다른 아들도 더 졌습니다만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었던 것은 처음 자기가 예상하고 구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복을 주셨더라는 얘 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 혜를 달라고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어요. 야곱도 보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진 짜 작은 거였어요. 제가 가는 이 길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 주셨나요? 먹는 것, 입는 것? 아니오, 대 가족을 주셨어요! 자기 아 버지, 할아버지는 감히 꿈도 못 꾸었던 어마어마한 가족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주셨잖아요. 야곱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것을 꿈 꿔어요. 예수님께서 왕 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다못해 그 밑의 장관 한 자리, 이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 꿈이 완전히 깨어졌죠? 그런데 먼 훗날 우리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비교하겠어요?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과 소원했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 복음에 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 물로 주신다고 해요.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주시는 분이예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으로 갚아 주셔요.

12절 보십시오. 약간 이상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기도에 대해서 죽 해오셨는데 12절은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남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 데려가서 밥 실컷 먹여놓고 ‘돈 내라’ 하면 체통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해야 상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사이에서도 자기가 먼저 대접 을 해 줘야 받는 것 아니냐? 이게 꼭 사람의 얘기 같은데 앞의 것과 연결시켜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무슨 맛있는 거 사 주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끝에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그러죠. 율법이라는 의미는 모세 5 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니라’ 그랬죠? ‘선지자들이 써 준 책’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 표 현이 보이면 ‘아, 이건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얘 기죠.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 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방법을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부모로 인정하나 요? 어떤 집에 여우같은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남편을 보고 “여보, 여보! 저 여우 조심해. 오늘 아침 수상해.” 왜요?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나가서 구두 닦아 놓고 정리정돈 해 놓

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눈치를 채고 “저, 여우 조심해.” 했는데 출근하는 아빠한테 온갖 서비스를 다 하더니 마지막에 “아빠, 나 옷 하나 사줘.”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써.” 그러고 갔어요.

옆에서 여우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도 그냥 카드 줬는데 애가 옷 한 벌만 산 게 아니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굶고 왔대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내가 아침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저런 여우같으면 다 주고도 좋아.” 이런 딸이 있으면 집안이 참 행복한데 요즈음은 이런 딸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려고 카드 빼앗아 쓰고 오는 것. 이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 른데 가서 그런 짓 안할 것 아니예요?

자식들이 참 염치가 없어요. 용돈 줬는데도 돈만 떨어지면 “아빠, 뭐 없어?” 이래서 또 뺏어가요. 그래서 용돈 추가로 뜯어가죠, 먹고 싶은 것 있다고 “한 번 밖에 안 나가나?” 하죠. “눌러 한 번씩 가야 하는데 아빠, 뭐 하는 거야?” 합니다. 자꾸 그러다가 한 번씩 쥐어 박히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꾹꾹하게 뜯어 갑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거 왜 쥐어 박혀 가면서도 꾹꾹하게 뜯어가고 그러나요?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뜯어가고 그래도 즐겁게 뜯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예의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태도 없는 고집을 부리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없는 아이가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인이 너무 많아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입시철 되면 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다가 시험 끝나면 줄어요. 이런 교인들은 대체로 아이들 같은 교인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면 기도 하지마라.’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답답해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애들이 그런다고 다 큰 놈들이 따라하면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이런 방식인데 다 큰 자녀들은 조금 달라지죠. 큰 아이들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부모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여라도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아니 들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시는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참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하셨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남편이 분명히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고로 죽었든 어쨌든 간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 부인이 의연하게 찬송하면서 남편이 다 하지 못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자녀가 아니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정하니까 아버지 뜻이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이 있음을 믿고 감당해 내는 거죠.

다윗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하시니 애가 병이 들었어요. 1주일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툭 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옆의 신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저렇게 울며불며 매달렸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툭 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 주실까?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 이 아이를 데려갔으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는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것,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려도 되는 하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꼭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에 요술 램프 이야기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 종 하나가 평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요, 하나님 나오셔서 저 좀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거나 않는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지나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판기는 넣고 누르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넣고 눌렀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나?” 이러면서 발로 차는 놈도 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 주십니까?” 이라고 하나님을 발로 차듯이 대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참 절없는 분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려도 되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찬송은 성숙된 자녀가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 찬송, 나쁘다고 하더라.”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이 복음송을 불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이라고는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더니 일으켜 세워놓고 이걸 부르더라.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정말 놀라운 충격입니다.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있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가 어리다면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초신자들에게 어울려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찬송이 어울려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분, 아버지로 모시고 돌봐야 할 그 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찬송만 즐겨 부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해도 순종하고, 바울처럼 “왜 이거 안 고쳐 주십니까?” 했을 때 “됐다, 그만 해라.” 했을 때 그 기도 그만 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이 나빠도 순종하고, 이것이 성숙된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뜻이죠.

움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잘 갔던 그 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도 자녀로 대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대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